

지역 소식통

김제보건소, 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김제시보건소에서는 지난 1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87개소 중 2017년에 구입한 42개소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자동 심장충격기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적으로 해주는 도구로,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다중이용시설에 자동 심장충격기의 설치 의무화되어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자를 대상으로 김제소방서와 연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이루어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보건진료소, 전남 완도 방문 지평선축제 홍보 나서

김제시 보건진료소는 직원과 가족 등 30여명이 지난 2일 김제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전남 완도군을 방문 지평선축제 홍보에 나섰다.

보건진료소장회는 이날 완도를 방문 오는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세계속 지평선, 세계로 향하는 지평선 축제'를 적극 홍보했다.

김제시 보건진료소장(2개소) 뿐 아니라 가족들이 참여해 단합대회를 겸하게 된 이번 방문은 특히 도자문화 1번지에서 펼쳐지는 김제지평선축제를 홍보하고 김제 관광과 특산품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은 민간교류 차원에서 완도군을 경험하고 현지 해양문화를 체험하며 자매도시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등 우정의 행보를 지속해 나갈 초석을 다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꿈드림, 점검고시 다수 합격

김제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지난 1일 지난달 9일에 실시한 2017년도 제2회 점검고시에서 센터의 지원을 받은 9명의 학생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김제시 꿈드림에서는 학습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 교실과 멘토의 재능기부를 통한 1:1맞춤 학습, 그룹과외, 교과별 인터넷 강의 수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을 지원하고, 진학상담, 진로검사, 자립교육, 건강검진, 문화체험,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과정을 상시 운영하여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을 돕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정신건강복지 T/F팀 운영

보건·복지 총괄반, 방문상담팀으로 구성... 체계적 서비스 제공기모

완주군이 정신건강복지 T/F팀을 구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일 완주군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보건소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보건서비스 총괄반, 복지서비스 총괄반, 방문상담팀으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에서는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희망복지팀 읍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

된 방문상담팀을 통해 정신질환자 가운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들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발적 입원(보호의무자 입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된 것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요건과 복지대책을 강화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제52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가 퇴원 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의 재활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완주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질환 퇴원환자의 사회 재적응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민간협력 체계 활용 및 주거지원, 사회복귀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특히 경찰의 협조를 얻어 정신질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청년 귀농귀촌 캠프 개최

도시청년 20여명 참여... 에버팜 등 지역공동체 탐방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청년들이 완주 귀농귀촌 캠프에 참여, 완주 농촌을 제대로 확인했다.

완주군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 과정으로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도시청년 20여명이 참여한 '제8회 완주 청년 귀농귀촌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에서의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는 도시청년들이 완주에

먼저 귀농·귀촌한 청년들을 만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은 완주군의 귀농귀촌 정책을 살펴보고, '에버팜', '날리날리 흥' 등 완주 청년들이 활동하는 지역공동체를 탐방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청년 귀농귀촌 캠프는 청년들이 완주군을 접해 볼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아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귀농귀촌 현황에 따르면 완주군에 귀농귀촌한 세대는 총 3,840세대로 전복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 비중이 1,553세대 40.4%를 차지하고 있어 완주군이 일자리, 주택, 자녀 교육 등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가장 적합한 귀농·귀촌지임이 입증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이병철 김제시의원, 전북의정봉사상 수상

지방의회·지역사회 발전 공로 인정

김제시의회 이병철 의원은 지난 1일 장수군 한누리전당에서 열린 제15회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전북 시군의회장단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전북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전북의정봉사상은 전북 시·군의회 의원 중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

제7대 김제시의회 안전개발위원회 소속인 이병철 의원은 축산 모돈 농

장 악취문제 해결 촉구에 앞장섰으며 쌀 관세화 개방에 따른 쌀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농어촌 마을 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이 의원은 쌀 수입개방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속에서 농가 소득창출과 농촌고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제시 농업이 수도작 중심에서 다원화된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꿀아야 하고 1차 산업이 아닌 미래형 6차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연구모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사랑으로 기른 고구마 나눔의 기쁨도 함께'

고구마 수확 후 40개 경로당 전달

지난 1일 김제시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4월부터 4개월간 정성껏 기른 고구마를 수확 후 40개 경로당에 전달했다.

주민자치위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사랑 실천을 위해 지난 1월, 주민자치 특색사업으로 '백구사랑, 고구마 나눔사업'을 선정하고 위원 23명이 주민이 무상 임대해 준 밭 1.127㎡에 고구마를 심어 위원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기른 고구마를 수확하는 기쁨과 더불어 경로당 어르신들과 고구마를 나눔의 기쁨도 함께했다.

조은희 위원장은 '백구사랑, 고구마 나눔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백구 발전의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주민화합 및 이웃사랑 실천의 장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최니호 백구면장은 포도 수확 등으로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고구마 나눔을 해준 백구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화합과 다 같이 행복을 위한 백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백구사랑, 고구마 나눔사업'에 쓰레기 투기지역 화분, 화단 조성으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에 앞장섰으며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땀방바자회를 개최하여 독거노인 생필품 전달, 저소득층 장학금사업 등으로 주민자치의 꽃을 피우는 꾸준히 노력하는 모범적이며 우수한 주민자치위로 평가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강관권 교수, 5일 완주 '길 위의 인문학' 강연

완주군 둔산영 어도서관이 운영하는 2017 길 위의 인문학 8번째 강사로 강관권 교수가 나선다.



지난 1일 완주군은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재직하며 '나무철학', '어느 인문학자의 나무 세계', '산비가 사랑한 나무', '나무 열전' 등 나무와 관련된 22권 책을 집필한 강관권 교수가 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오는 5일 도서관 강당에서 열리는 인문학 강연에서 강 교수는 '나무 : 인생을 바꾸는 삶의 태도'를 주제로 나무를 통한 성찰과 힐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강교수는 중국 청(淸)대사를 전공한 사회학자지만 동시에 '나무병 환자', '나무에 미친 괴짜'라고 불릴 만큼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완주군의 길 위의 인문학은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문학의 요소를 찾고 재조명하여 참여자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취지의 공모사업이다.

완주군은 '나무랄 데 없는 나무와 떠나는 인문학 여행'이라는 주제로 숲과 나무와 관련한 인문학특강과 탐방을 총 12회차로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문의는 완주군립 둔산영어도서관(280-2242)으로 하면 된다. 이 밖에 운영되는 프로그램 및 행사정보는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wan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Im-sil Cheese' (임실치즈) featuring various cheese products and a background image of a cheese factory building. Text includes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and '임실치즈'.